

투데이 칼럼

성공을 부르는 리더의 조건

비즈니스, 직장생활에서 인정 받고 인간관계에서 호감 얻고 싶은가 토론, 연설, 사회 등등 더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언변력(스피치력)을 길러야 하고 이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고, 거인을 철저히 무드려 없앨 수도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현대의 매력 있는 사람은 세련되고 멋지게 표현할 줄 아는 말 솜씨,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과 유머 리더쉽, 위트, 그리고 재치가 풍성해야 한다.

"좋은 유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빛나는 의상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주변도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유머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주위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모임에서 주의를 끄는 사람은 유머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로 유머나 긍정의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이다.

전 미국대통령 레이건은 산소 같

은 유머로 지지율이 88%까지 상승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유쾌하지 못하고 상대를 짜증나게, 상대를 떨치고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주위에 간혹 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초지만 상대의 가슴속에는 30년 동안 남는 말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부부간에 몇 마디 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말의 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렇지, 언제 잘한 적이 있냐?" 둘째, "당신이나 잘해" 셋째, "주제 파악이나 잘 해!"

넷째, "당신은 당신 말만 해, 나는 내 말할테니"

이런 유형의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준다. 말은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3분의 2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

탈무드에서 "말이 입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내 입에서 말이 밖으로 나가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하면서도 함을 내는 긍정의 좋은 말을 해야 한다.

또한,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숨어 있는데, 전 현대그룹의 정회장의 "시련이 있더라도 실패는 없다"는 철학과 같은 말은 세계적인 대기업

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성공의 비결은 "말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글로벌 인재를 꿈꾸며 성공을 원한다면 반드시 진정성과 긍정의 말을 화려하게 말하는 스피치기법을 습득해야 한다.

표현력을 기르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서 인정 받는 능력있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의 전설적인 경영인 아이어코키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표현력의 기술 덕분'이었다고 회고했고 인간관계 전문가 제임스 F 밴더 박사는 미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더의 제1조건은 '스피치'라고 말하였다.

현대사회는 능력위주의 사회다. 성공을 위해 성공한 리더가 되기 위해 방식에서 벗어나 스피치기법을 터득하여 보자.

스피치는 소질이 아니라 학습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단히 연습을 한다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양 옥 한국 스피치 리더쉽컨설팅대표

사설

전북혁신도시의 발전 관심사 키워야

혁신도시에 주목해야겠다. 저번에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넓게 확산되면서 그 여론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그게 그뿐이다.산업발전위 제3 금융도시의 방안을 논의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터이다.그래서 여기 혁신도시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계속해서 발전 관심사를 고조시켜야겠다.

계속해서 발전 관심사를 고조시켜야 할 이유는 많다.공공기관들이 이전 완료됐음에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기업 이전 효과가 미미하다. 겨우 두 개 기업밖에 따라와 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정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업 이전에 따른 고용 창출을 기대했는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현황을 보면 그마저 난감하다. 분양난 해결 문제부터가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을 간헐적으로 말하지 말고 줄기

차게 말해야겠다. 브레인들과 일의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현황을 보니 답답한 게 있었는데 기업들 역시나 임직원들의 수가 너무나 적다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외부 인구 유입 효과는 거의 정무하다고 해도 무방하다.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했는데 아직은 그것을 피부로 감지할 수가 없다. 공공기관들과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 일자리도 늘고 세수입도 있으리라 여겼는데 그게 짧은 생각이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지금의 자리에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상고해야 한다.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 얼마나 애달우며 힘을 쏟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처음에는 터덕거리기도 했지만 한 때는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될 만큼 진척이 빠른 때도 있었다.그런데 그 혁신도시가 속체를 남기고 있는 자국이다. 전북도는 혁신도시의 발전 관심사를 더욱 기울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사업 추진은 증액된 예산이 말한다

예산 증액을 위한 행보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아직은 모든 게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 두 부지사와의 지사가 릴레이로 나왔던 것은 잘한 일이다. 지역발전 현안사업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거듭 말했다는 터이니 말이다. 그래도 생각해볼 점이 남아 있다. 그것은 실득 노력이 주효했는가 궁금하다. 다른 광역 시도들도 자기 지역을 위해 것처럼 분주했을 터이니 말이다.

지금 예산 증액을 반복해 주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전북의 예산 증가율이 매년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겨우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다지만 그게 거북이 걸음이라서 미덥지 않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SOC 사업이 생각보다 더딘 것이다.그리고 탄소산업도 그렇다. 전북도가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말하는 것은 것과는 달리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진 쪽에서는 엉뚱한 말

을 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익산식품클러스터사업도 그렇다. 사업을 벌인 지 오래된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만족치 않다.

전북도는 다시 저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 전북의 낙후는 정부의 인색한 예산 편성이 그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래도 정부 탓만하기에는 세월이 아깝다. 인색한 예산 편성을 순응 하듯 받아들인 탓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 더딘 게 정부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되뇌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더욱 뛰어야 한다. 전북의 오랜 낙후는 도민의 정서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역 발전을 말해온 사업 추진을 위해 계속 힘내야 한다.

전북도는 지금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예전처럼 해선 안 된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대폭 증액된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다.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또 다시 보여야겠다.

독자제언

무단횡단 근절로 소중한 생명 지키자

근무를 하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불과 50m 앞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건너는 보행자와 이야기를 해보았다. "차량이 안 오니까, 시간이 없어서"라는 이유다. 무단횡단 하는 장면은 도로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좁은 도로를 물론 편도 4차선 이상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한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걸어간다. 누구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려니 하면서 바라볼 뿐이었다. 맞은 편 인도에 도착한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간다. 또 말쑥하게 차려입은 직장인 무리들도 무단횡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얘기를 나누면서 건너는 모습이 한가롭기까지 했다. 이들에게 질서 의식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잃은 지 오랜 듯 보였다. 조금만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지만 사람들은 위험한 차들 사이를 내달리기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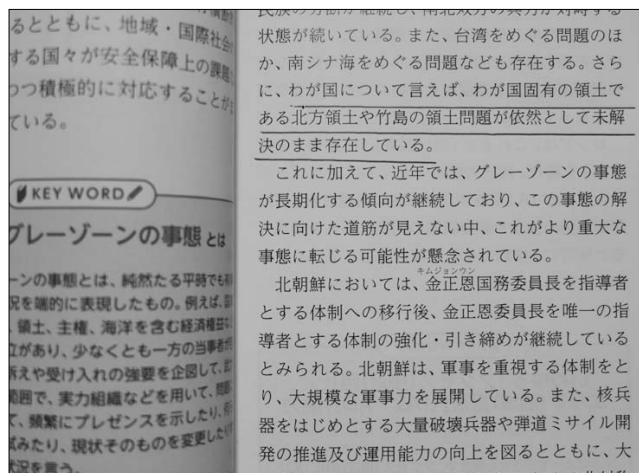
관계당국이 시설물 보수 및 점검을 하고 있지만 무단횡단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시설물조차 넘어서 건너가기 때문이다. 무단횡단이 오히려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차량이 보행자를 직접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사망하는 비율 또한 높다. 아무데서나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는 무단횡단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의해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은 범칙금 2만 원이다. 나 하나 관할했지 라는 마음으로 무단횡단을 일삼다보면 개인적인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 평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진재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2018년도판 일본 방위백서 '독도서술 부분'



일본 정부는 28일 올해로 14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8년도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사진은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식 표기)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일출).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Large advertisement for 'Jeonju Maeil' newspaper. It features a stylized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sea with a sun in the background. The text includes a headline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A platform for humanity that provides courage and hope) and a sub-headline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A better newspaper, a newspaper loved more, a newspaper with readers). The ad lists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accurate news and supporting regional development. At the bottom, it includes the website 'www.jjmaeil.com' and the phone number '063-288-9700'. The logo '전주매일' is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bottom right corner.